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2000년도 표어 ☉

"우리의 소망되신 예수 그리스도" (딤후1:1)

☉ 4대 실천강령 ☉

- 1. 하나님의 전(展)을 짓는 해가 되도록 한다.
- 2.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한 세기가 되도록 한다.
- 3.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장하는 새 천년이 되도록 한다.

발행 인: 이종윤 발행 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02) 517-7651 ~ 5 팩스 (02) 512-1225 http://seoulchurch.or.kr

새 천년을 맞는 우리의 소원

우리 주님이 오신 이래 세 번째 맞는 천년이다. 두 번째 마지막 백년이 되서야 우리 민족은 복음을 받았다. 그러나 나중 된 자 먼저 되는 주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넘침으로 세 번째 천년은 희망과 영광으로 가득 채워질 것이 분명하다.

새해에는 우리를 온전케 하소서!

세상에 미완성된 작품이나 일이 많이 있다. 꿈과 현실의 거리가 있고 용두사미식 일들로 인해 불완전한 끝맺음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부족하여 우리를 온전케 하실 수 없을까? 하나님이 온전하시니 너희도 온전하라 하셨다. 따라서 우리의 지식, 의지, 감정, 믿음, 사랑, 능력이 성숙을 넘어 온전에 이르기를 새해엔 소망해 본다.

새해에는 우리를 굳세게 하소서!

하늘의 무지개는 찬란하지만 곧 사라지고 만다. 뿌리가 없기 때문이다. 굳게 한다는 것은 든든히 세움을 받는 것을 뜻한다.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한다는 것이다. 작은 바람 앞에 뿌리 채 흔들려 날아가는 부평초 같은 인생은 안된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믿음에 굳게 서라"(골 2:6-7)고 하셨다. 그리스도 사랑에 감복해서 그 사랑에 뿌리를 내리고 주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으로 바라보고 소망의 닻줄을 매어라. 감



2000년 신년메시지

이종윤 목사

정에 흔들리고 떠는 자가 아니라 태산보다 묵직한 믿음을 가진 이가 굳게 선다.

새해에는 우리를 강하게 하소서!

온전하고 굳게 선다 해도 힘이 없으면 지탱할 수가 없다. 힘없는 사람은 비참하다. 원수 마귀가 덤벼들 때 손에 든 검을 땅에 떨어뜨리고 방패조차 붙들 힘이 없고 두 다리로서 있을 힘이 없다면 문제는 심각하다. 이유는 말씀의 양식을 먹지 못한 연고요 말씀을 먹고도 소화를 시키지 못해 회개치 못했기 때문이다. 여호와로 힘을 삼은 삼손, 다윗, 바울은 강한

아들이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강력한 힘을 갖게 될 터이니 이 복을 구하자.

새해에는 우리를 견고케 하소서!

든든한 집을 세우려면 기초 공사가 견고케 되어야 한다. 매주 나무를 옮겨 심으면 그 나무는 죽는다. 사람의 말과 환경에 따라 흔들리지 말고 말씀의 반석 위에 견고한 터를 만드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과 부르심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 하는 삶을 사는 이가 견고한 터를 닦은 이다.

베드로처럼 새해엔 우리가 온전케 되고 굳게 되며 강하게 되고 터가 견고해지기를 기도하자.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 질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 받으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민족적으로는 통일을, 사회적으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도록 하고 교회적으로는 새 예배당을 지어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의 산실이 되게 하며 개인적으로는 기록에 이르는 믿음의 진보가 있는 새해가 되기를 기원한다.

새해 인사

"인류의 소망 되신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당회원 일동 -



2000년도

서울교회 목회지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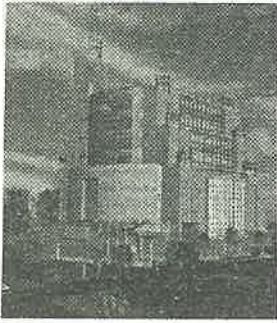
■ 표어

"우리의 소망되신 예수 그리스도(딤후1:1)

■ 행동강령

- 1. 하나님의 전(展)을 짓는 해가 되도록 한다.
- 2.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한 세기가 되도록 한다.
- 3.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장하는 새 천년이 되도록 한다.

우리 교회 새 예배당



비전따라 믿음의 기도로 세운다

- 올해 안에 입당 계획 -

오정수(장로, 건축위원장)

우리 교회 새 예배당 일을 시작할 무렵이 목 사님은 건축을 위한 7대 기도제목을 발표하셨다. 그 중에 "벽돌이 아닌 기도로 세우게 하시고 기 술이 아닌 비전으로 짓게 하옵시며 물질이 아닌 믿음으로 이루게 하소서"라는 기도 문구가 있다. 나는 건축위원장으로서는 솔직히 물질 걱정을 많 이 해야 할 처지에 있었기 때문에 이 기도문에 의의한 생각을 갖고 사석에서 가끔 이 문제를 거 론하기도 했다. 믿음은 기본이니 "물질을 많이 주소서"라고 기도해야 옳지 않겠느냐고 했다.

1999년 11월 15일 시공회사의 자금난으로 결 국 공사 중단이라는 처방을 받고서야 비로소 나 는 거꾸로 "물질이 아닌 믿음으로 이루게 하소 서"라는 기도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고 목사님께 비상기도회라도 열자고 재촉하기도 했다. 시공 회사 선정 과정에서부터 계약까지 모든 것을 조 사하고 철저히 관리했다. 그러나 그것은 물질을 기초로 조사하고 계약을 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믿음의 결여를 매를 맞고서야 깨닫는 우둔한 인생임을 이제야 고백한다.

"내가 내 집을 영화롭게 하리다"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서울교회 새 예배당은 영 광스런 모습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 솔로몬의 성 전 건축 시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 가 들리지 않았듯이 조용히 거룩한 전이 올라가 고 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이루게 해 달 라는 성도들의 뜨거운 기도가 있기 때문이다.

새 천년의 원년이 되는 올해 안에 공사를 마치 고자 계획을 수립했다. 지난해 건축법 개정에 따 라 건축주가 시공할 수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였다. 공사비를 크게 절감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일의 진행도 순조롭게 된 것이다. 이스라 엘이 광야에서 성막을 지을 때 브살렐과 오홀리 압과 같은 이들을 하나님께서 불러 사용해 주셨 듯 마음이 지혜롭고 총명한 신실한 건축위원들 이 당회원들의 후원을 얻어 신속하게 대처해 나 감으로 교회적으로는 영적 결속을 이루는 계기 가 되었고 공사 현장은 공사비와 일정을 줄이는 기회를 얻게 되었으니 이 또한 하나님의 크신 은 혜였다.

성군 다윗에게도 허락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집 건축을 우리에게 명하신 것을 크게 감사하면 서 이 목숨 다 바쳐 하나님의 뜻 이루기를 기도 한다.

새 천년에

오화영(대학부)

새 천년!
새해를 마음껏 따다
갖 행구어 낸
가슴에 걸어 놓고

내 발에 꼭 맞는
소마의 꽃신을 신고
순결한 꿈을 꾸고 싶어라

하늘과 땅이 맞물려
당신을 새겨 내는
멈출 수 없는
거룩한 싸움터

값비싼 피값으로
두 벌의 옷을 벗어 던지고
웃자란 육체를
분토로 쏟아 놓는다

오늘도
산을 들어 바다에 띄워 놓고
승리의 깃발을 펼치며
당신의 이야기를
노래 부르리

"새로 짓고 있는 우리 예배당을 찾아가 봅시다."

작년부터 건축 중인 새 예배당을 매주 월요 일에 방문하는 현장 방문 행사가 계속됐다.

교회는 올해에도 전 성도들이 현재 짓고 있 는 새 예배당을 한번쯤 방문할 수 있도록 새 예배당 건축을 위한 기도회 및 현장 방문 계 획을 세웠다.

방문 일정은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실시되며 시간은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부터 오후 1시까지다. 오전 시간엔 교회당 2 층 예배실에 모여 새 예배당 건축을 위한 7가 지의 기도제목을 중심으로 기도회를 갖는다.

이어 건축 현장으로 이동하여 오후 12시부 터 1시까지 현장을 방문하여 건축 진행 상황 을 살펴보게 된다.

특히 현장 방문 시간 중에는 차와 김밥 등 간식류와 돛자리를 준비하여 함께 음식을 나 누는 간식 시간도 마련된다. 방문 일정은 가 급적 지킬 것이 요망되나 부서 사정에 따라 변경도 가능하다.

모든 성도들의 정성을 담아 하나님께 봉헌 하는 이 역사에 아낌없는 참여가 요청된다.

2000년도 새 예배당 건축을 위한 기도회 및 현장 방문 계획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주	당회	스데반회	루디아	마리아	중등부	고등부	베들레헴	당회	대학부	청년부	새가족부	무지개회
2주	제1권사회	제2권사회	베드로	엘리아	아브라함	가브리엘	호산나	제1권사회	제2권사회	바울	엘리아	루디아
3주	빌립	안드레	뵈뵈	에스더	새가정부	할렐루야	시온	베드로	사랑부	장년부	에스더	대학부
4주	유아부	유치부	바울	모세	사라	임마누엘	무지개	초등부	뵈뵈	마리아	안드레	건축위원회
5주	도르가			유년부			스데반			소망부		교역자·직원

교역자수련회에 다녀 와서

무지개를 꿈꾸며

최지혜(전도사, 유치부 지도)

얼마 전 분수대에서 솟아오르던 물줄기가 햇살을 받아 영롱한 무지개 빛을 띠우자 아들 승세와 성민이는 그 아름다움에 탄성을 질렀다. 무지개의 매력은 무엇일까? 자녀들에게 들려 주고자 여러 날을 고민했다. 그리고 결론을 얻었다. 여럿이지만 하나이고, 모두 다르지만 모여서 가장 아름다운 것, 그것이라고.

이번 교역자수련회에서 나는 또하나의 무지개를 보았다. 짜여진 시간표에 조금도 어긋남이 없는 진행, 각자의 개성이 드러나지만 하나도 두드러지지 않아서 자신의 분야를 지키고 있는 모습들이 마치 맑은 하늘의 무지개를 연상케 했다.

이종윤 목사님의 주도 하에 지체없이 진행되는 순서 속에서 허리가 '이젠 설 때'라고 세 번쯤 외치면 약간의 쉬이 주어졌다. 그 쉬를 즐기는 기쁨이 새로웠다. 약간의 긴장감이 감

돌면 한쪽 구석에서 유머도 아닌 애교도 쏟아졌다. 긴장감이 풀어지면서 우린 이제 자신만의 색이 아닌 또 하나의 색이 있음을 알았다.

이종윤 목사님은 분명 빨간 색이다. 가장 외곽에서 그 크기와 모양을 지키지만 가장 강렬한 빛이다. 가끔은 눈이 부시다. 주황은 지혜영 전도사님이다. 아늑한 느낌을 주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정도(正道)를 이야기 하신다. 그리고 교육부 전도사님들은 노란색이다. 가장 눈이 띄고 화사하지만 양쪽의 울타리 안에 숨어 있다. 초록은 이성득 목사님이다. 넓지만 항상 새롭다. 뜻뜻한 향내를 낸다. 파랑은 고정

선 목사님이다. 맑고 드높다. 막힘이 없고 추진력이 있다. 남색은 정운돈 목사님이다. 교회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내가 섬기는 분이 다. 유머가 없어 약간 어두운 빛이지만 흡수력이 있다. 그걸 난 포용력이라 말한다. 보라는 당연히

이규정 목사님이다. 신비를 느끼게 하는 색이다. 시종일관 빈틈이 없이 일을 계획한다. 여기에 있겠지 하면 벌써 앞서서 어딘가에 있다. 하지만 이 모든 색은 그냥 색이 아니다. 서울교회를 섬기는 무지개라는 하나의 색이다. 각각일 때 눈에 들어오지 않지만 하나가 되어 너무 아름답다.

이상진 목사님의 말이 자꾸 떠오른다. "지금 참 아름답다. 나는 사람 복이 많다.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덕이다. 서울교회에 와서 이렇게 아름다운 빛에 속해서 무지개를 꿈꿀 수 있다는 것, 2000년의 새로운 희망이다."

우리 교회 부교역자들이 본

서울교회 강점과 약점들

우리 교회 교역자 연말 수련회가 지난 12월 27일(월), 28일(화) 양일간 설악산 현대 웨일리 콘도에서 열렸다.

25명의 교역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종윤 목사의 2000년도 목회지침 강의를 필두로 각 위원회별 목회방향 설정을 위한 세미나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 부교역자들이 본 서울교회 오늘의 모습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 강점

1. 말씀의 선포가 성경중심(복음적)이다.
2. 인제가 다양하다.
3. 사회 봉사가 원활하다.
4. 성도들이 순종적이다.
5. 성도들 간에 사랑이 있다.
6. 성도들의 응집력이 있다. 열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다.
7. 창립 멤버들이 헌신적이고 열정적이다.
8. 목회자 중심의 목회다.
10. 목회 방침이 성경적이다.
11. 교회학교 교사들이 헌신적이다.
12. 당회가 화평하고 강력한 리더십이 있다.
13. 많은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는 교회다.
14. 장로님들이 청렴하다.
15. 사역에 전문성이 있다.
16. 찬양대가 아름답다.
17. 예전의 집행이 감동적이다.

18. 새 예배당 건축에 대한 기대가 있다.
19. 민족 사회를 향한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다.
20. 봉사 부서를 개인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좋다.
21. 성도들의 교회를 향한 봉사가 매우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2. 조직이 잘 돼 있다.
23. 프로그램이 다양하다.
24. 시대를 앞서가는 향도자적 역할을 하는 교회다(개정개역판 성경의 사용, 목사제복 등).
25. 부서 조직이 실제적이다.

▶ 약점

1. 상가 중심의 강남대로에 위치했다.
2. 변화를 수용 못하는 고정관념이 있다.
3. 목회자 수가 부족하고, 목회자들의 일이 중복되어 업무가 과중하다.
4. 교회학교 환경(시설 등)이 열악하다.
5. 창립 멤버들의 배타성이 보인다.
6. 교회학교 운영이 비전문적인 경향이 있고 프로그램이 다소 빈약하다.
7. 다른 기관으로부터의 배움이 부족하다.
8. 너무 조직화 되어 경직되어 있다.
9. 체계적인 교사훈련 과정이 없다.
10. 많은 행사로 교인들이 지칠 우려가 있다.

11. 교인관리가 일관성 있게 정리되어 있지 못하다. 교회 행정이 강화되어야 한다.
12. 교회학교에 출석하고 있는 학생의 부모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13. 초신자들이 새 예배당 건축에 대한 부담감을 가질 수 있다.
14. 개인주의적 성향의 성도들이 있다.
15. 선교 사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다.
16. 기도의 열기를 지속시키기 위해 기도실이 필요하다.
17. 장로들의 신앙열이 부족한 듯 보일 때도 있다.
18. 구제 사업이 보다 활성화되어야 한다.
19. 프로그램 중심의 사역은 자칫 소외감을 가지게 할 수 있다.

100교회 운동

농어촌 100교회 운동이 새해에도 계속 된다.

100교회 운동본부에서는 100교회 운동에 참여한 모든 후원자들이 작년에 결연한 교회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새롭게 이 일에 참여할 성도들을 위해 계속하여 신청을 받고 있다. 100교회 운동은 농어촌 미자립교회와 결연하여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는 것으로 한 가정이나 개인별 혹은 전도회, 다락방, 교회학교, 찬양대 등이 협력하여 참여할 수도 있다. 신청 및 문의는 사무국.

신년예배와 성찬식

2000년도 첫 주일인 오늘 I·II·III부 예배는 신년감사예배로 드린다. 신년예배 시에는 새해, 새 천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성찬식을 거행한다.

현금시간에는 신년감사헌금을 드린다.

공동의회

오늘 III부 예배 후 공동의회가 소집된다. 의제는 1999년도 결산승인의 건과 2000년도 예산 승인의 건이다. 공동의회는 우리 교회에 등록된 세례교인이면 누구나 참여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순결서약식

오늘 찬양예배 시 2000년도 순결서약식을 갖는다.

순결서약식에서는 참가자들이 주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으로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겠다는 서약을 하게 되며 서약을 항상 상기할 수 있도록 교회와 부모 그리고 주변의 어른들이 마련한 '순결반지'가 주어진다.

오늘 순결서약식에는 13세 이상의 미혼자로 앞으로 결혼 전 순결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결심을 하고 지난 31일 순결 교육을 받은 성도들이 참가하게 된다.

2000년 청지기 수련회

2000년도 청지기수련회가 3일(월)부터 7일(금)까지 특별새벽기도회가 끝난 새벽 5시 45분부터 6시 30분까지 실시된다. 수련회 기간 중 요일별로 위원회별·직분자별 특강이 진행

된다. 강사는 위임목사와 각 위원회 지도 목사가 맡았다. 청지기수련회 일정은 아래 <표>와 같다.

월별 테마전도

전도위원회에서는 2000년도 전도 활동의 일환으로 매월 마지막 주일을 테마전도주일을 정하고 성도 한 사람이 믿지 않는 이웃 한 사람씩을 인도해 오는 전도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월별 테마전도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월 가장 친한 친구 한 사람 데려오기
- 2월 옆(앞·뒷)집 사람 모셔오기
- 3월 불신 남편(아내) 모셔오기
- 4월 직장 동료 초청하기
- 5월 잃은 양 찾기(다락방·교회학교)
- 6월 불신 부모님 모셔오기
- 7월 가장 가까운 친척 모셔오기
- 8월 불신 자녀 데려오기
- 9월 선배 모셔오기
- 10월 후배 데려오기
- 11월 단골 손님 모셔오기

선교회·전도회 담당 위원

- 빌립·도르가 민순구 장로
- 안드레·루디아 노문환 장로
- 베드로·뵤뵤 오정수 장로
- 바울·마리아 이병생 장로
- 엘리야·에스터 김영준 장로
- 모세·한나 박철훈 장로
- 아브라함·사라 왕경래 장로
- 남선교회 간사 김성준 집사
- 여선교회 간사 김상욱 집사
- 100교회운동 간사 오승민·계오복 집사

기독교교도소 법제화

-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 -

민영교도소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지난 28일 통과됐다.

이 법안은 주무 부서인 법무부로 넘어가 시행령이 제정되고 1년 내에 구체적인 표준안이 만들어지면 교회는 법무부와의 계약 하에 기독교교도소를 설립케 된다.

기독교교도소 추진위원회 이사장인 이종운 목사는 지난 92년부터 법제화를 위해 기도해 주신 전국 교회 성도님들께 감사를 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교구별 봉사 일정

올해 찬양예배 시간에는 다락방을 소개하고 참가한 다락방 식구들이 찬양을 드리는 순서를 갖게 된다.

한편 예배 후 교회당 앞뜰에서 섬기는 차(茶) 대접 봉사도 교구별로 담당하게 된다. 순서는 1교구부터이다.

■ 동정 ■

* 이종운 목사는 5일(수) 감사원 2000년 연초 직원 특별교육 강사로 강연한다. 7일(금)엔 오전 9시 30분부터 소망교회당에서 열리는 서울 강남노회 신년수련회에서 강연한다.

* 이번 주 식사는 탁경준·전정숙 집사 가정에서 제공했다.

* 당회원은 1일(토) 새예배당 건축을 위한 기도회 및 현장방문을 했다.

■ 이사 ■

* 정동학·김복순 집사, 의정부로(☎0351-821-7804).

■ 이종운 목사 방청실고 ■

기독교방송(HLKY 98.1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KX 1188KHz) 생명을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 2000년도 청지기수련회 일정 ☐

구분	교회학교교사	교구일꾼	찬양대원	전도회원	장로·권사·집사
일자	3일(월)	4일(화)	5일(수)	6일(목)	7일(금)
오전 5:00	특별새벽기도회(강사: 이종운 목사)				
5:45	헌신된 교사와 신앙교육	교구일꾼의 실제	찬양대원의 자세	전도회원의 사명과 역할	성경적인 중직자상
6:30	이성득 목사	정윤돈 목사	고경선 목사	이규정 목사	이종운 목사

서울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우리의 소망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2000년을
2. 연말 연시 교회행사를 위해
3. 대학입시를 치르는 성도들을 위해
4.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예배당 건축을 위해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30분

† 교외약도

